



육계시장

(단위: 원:kg)

월일	지역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구분	하이	쌈미	노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8.	1	700	700	450	800	730	780	800	740	
	2	670	680	450	780	750	770	800	740	
	10	660	650	450	750	710	700	850	740	
	16	680	640	430	690	690	700	800	700	
	22	660	630	430	680	680	680	800	670	
	25	660	630	430	680	680	680	800	670	
79년	7월	688	662	377	711	720	683	723	704	
	8월	767	739	405	736	712	760	773	769	
	9월	511	509	312	602	571	587	694	576	
	10월	391	389	272	453	496	433	560	427	
	11월	447	442	206	486	499	469	498	458	
	12월	392	361	223	419	413	377	435	419	
	80년	1월	752	747	303	781	780	708	737	784
		2월	947	963	350	976	972	972	894	972
		3월	1,138	1,136	546	1,151	1,128	1,048	1,096	1,096
		4월	800	768	308	781	769	802	864	882
		5월	591	599	312	622	609	646	660	637
		6월	593	591	333	643	630	630	660	623
		7월	624	615	374	688	692	674	695	656

강보합세예상

금년 여름 성수기는 갖가지 장해요인이 시세회복을 방해하는 불운하고 답답한 시기였다. 서울지역 도계법실시가 계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으면서 때로는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육계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또한 끈질기게 계속되는 것은 날씨로 놀이용 닭고기 소비가 전혀 활기를 띄지 못해 서울·경기·중청지역의 시장은 성수기조차도 700원을 잠깐 넘나들었을 뿐 예년에 없는 침체를 나타냈다. 또한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생산자들은 별볼일없는(?) 시세상황에서 사료값이나 줄이자는 생각에서 세미의 조기출하 경향을 나타내 세미가격이 약세를 보이기는 했다.

한편 미국의 사료곡물작황은 옥수수 경우 사상최고의 풍작을 이루었던 작년보다 14% 감소, 대두는 17%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옥수수의 비축분이 최고 수준으로서 물량상에 큰 문제는 없으나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여 약 20% 수준이내에서 사료가격 인상이 계속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계 생산자는 누적된 불황적자 위에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이라는 새로운 고통의 짐을 지어야 하는 반면 산물가격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육계 생산자는 최악의 시련을 맞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명확해진다. 생산자는 모두 비상한 각오로 생산조절을 실시하여 제값받기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과 세심한 사양관리로 생산비를 절감하므로써 주어진 조건하에서 수익을 확보하거나 적자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말로는 간단한 이 사항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육계 생산자는 곤경을 극복 할 수 없을 것이다.

왜지고기와 최고기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닭고기 소비대체 효과에 의한 소비증가와 추석경기에 다소 희망을 걸어 9월의 시세는 강보합세를 나타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종(하이) 가격 월별 추세(서울지역 1979~80년) (단위: 원/kg)

